

서효인의 '소설처럼'



죽은 사람을 위해 - 조지 손더스 '바르도의 링컨'

2017년 맨부커상 수상작 '바르도의 링컨' (조지 손더스 지음, 정영목 옮김, 문학동네·2018)은 영어권 소설에서는 이제껏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세계를 그린다. '바르도'는 이승과 저승 사이를 일컫는 불교 용어라고 한다.

리에게 익숙하다. '바르도의 링컨'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따라서 발상의 기발함에 호들갑스레 놀란 원어민 독자에 비해 동아시아의 한국 소설 독자들이 이야기의 메시지에 보다 집중하여 읽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가능성이 발생한다.

수한 영혼일수록 이곳이 아닌 저곳, 바르도가 아닌 천상에 있어야 하지만 윌리는 고집을 부린다. 바르도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한스 불먼, 로저 베니스 3세, 에벌리 토마스 목사는 불쌍한 소년 윌리를 어떻게든 저승으로 보내려 하지만, 일은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뭇пис는 안 된다. 소설 후반부에 전개되는 거대한 감동을 소설 독자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성과 합리성을 근간으로 태동한 근대 문학, 그중에서도 근대성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소설' 장르에서 이토록 비이성적이고 불합리적인 배경과 모티브라니... 가히 '읽는 책이 아니라 경험하는 책, 소설의 경계를 확장하는 걸작'이라는 찬사가 그들에게는 히트소리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바르도'에는 삶에 미련을 다 버리지 못한 영혼이 모여, 죽음을 받아들이길 유예하며 살으려 하는 헛된 희망을 품는다. 열한 살 소년 윌리는 그런 바르도에 새롭게 등장한 영혼이다.

그럼에도 바르도의 영혼들은 힘을 다해 링컨과 윌리의 마지막 만남을 이뤄 내려 한다. 소년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대로 에도받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추모하기 위하여.

하지만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소년을 향한 모두의 애도. 소설은 사람이 사람을 애도하고 추모함이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쫓는다. 무엇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음을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 산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묻는다.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짐작한다. 우리도 그것이 궁금했다.

하지만 동양적 사고에서 이승과 저승 사이의 '그곳'은 희박하거나 참신한 개념은 아니다. 우리는 이승에서의 한을 풀지 못해 저승에 도달하지 못한 것들을 '귀신'이라 부르고 그들을 어르고 달래는 이야기를 구전으로든 매체로든 듣고 전달해 왔다. 멀리는 '전설의 고향'에서부터 가까이 '신과 함께'에 이르기까지 죽어도 죽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하다.

소년은 미합중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셋째 아들이다. 아들을 잃은 비탄에 잠긴 대통령은 묘지에서 아들의 시신을 꼭 껴안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거대한 공적 일상으로 복귀한다. 윌리는 아빠가 건넨 그날의 약속을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아빠를 기다리며 저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바르도의 링컨'은 영적인 존재나 유희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하더라도, 쉽게 읽히는 작품은 사실 아니다. 소설의 화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당시의 신문 기사, 책, 서간문이 소설 곳곳에 자리하며 비이성적인 이야기의 이성적 토대를 구축한다. 마흔 명이 넘는 영혼은 제각각의 사연과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소설을 입체적이게 하면서 동시에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는 것을 방해한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는 애도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 숙고했다. 결론은 나지 않은 듯하다. 어느 전직 국회의원은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하게 해 치먹는다'라고 말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애도란 무엇이고, 도리란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판이다. 사람이 아닌, 바르도의 유희들이 차라리 나오는 사람이라는 게 우습고, 무섭다. <시인>

기고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 바로 세워야



주승웅 국회의원

여순 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함께 한국 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불법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인 것이다.

여순 사건의 그릇된 역사 인식으로 인해 여수·순천·구례를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은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상호 불신의 시대를 살아야 했다.

기'라는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다. 2003년 10월 31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때 국가 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제주 4·3 사건 71주년 추념사에서 "제주도민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하며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실종자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에 항명함으로써 촉발된 여순 사건은 제주 4·3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이다. 제주 4·3 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적으로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기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순 사건은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순 사건은 한국 전쟁 전후에 발생한 여타 개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비해 민간인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사건 전개 기간 및 피해 지역도 광범위하다. 전남도의 피해 조사 결과에 의하면 1만 1131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피해 지역도 전남, 전북 및 경남 일부 지역까지 33개 시군에 달한다.

'빨갱이'라는 멍에가 씌워진 희생자들과 '빨갱이 가족'이라는 딱지가 붙은 유가족들은 지난 70년 동안 온갖 차별과 냉대 속에 침묵과 통탄의 세월을 살아왔다. 유족들은 부모, 형제, 친척을 잃은 박탈감 속에 정신적 후유증으로 평범한 가족생활도 영위하지 못했다. 가장을 잃은 가족은 생계가 곤란해지고,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등 경제적 궁핍 속에 우리 사회의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이승만 정권의 사상 통제 강화로 신원 조회와 연좌제에 묶여 해외 출국, 공직 진출, 취업 등 모든 생활에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등 국민으로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두 사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쌍둥이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 제주 4·3 사건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었고, 2014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군과 경찰도 4·3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여순 사건은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고 있고, 유가족들마저 한을 풀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시간이 가면 진상 규명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불행한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여순 사건을 철저히 이용했으며, 여순 사건에서 시작된 빨갱이 낙인찍기가 한국 현대사에서 끊이지 않았으며, 한국 현대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이분들의 수난의 세월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우리의 역사이다. 하지만 아직껏 진실 규명과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과거사 정리법에 의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의결하고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16대, 18대, 19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논의가 공전돼 결국 무산됐다.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도 제가 여순 사건 70주년 이던 지난해 11월 19일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06명의 서명을 받아 여순 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모두 다섯 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지만,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순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바로 세우

의료칼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환, 기억이 지워지는 '치매'



김지영 상무힐링재활병원 원장

봄은 산 아래 남쪽에서 산 위 북쪽으로 올라가고 가을은 산 위 북쪽에서 산 아래 남쪽으로 내려온다. 이른 봄 매화부터 시작하여 동백, 개나리, 도화, 이화, 진달래, 철쭉 등 온 산천이 꽃물결로 출렁거린다. 산과 섬에는 울긋불긋 옷차림의 상춘객으로 가득하고, 들녘과 시장에는 파릇파릇 향기로운 봄나물로 가득하다.

알마 전 총청도에서 치매로 고생하는 80대 아버지를 10년 동안 간병하던 40대 아들이 '아버지를 대려간다.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자살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10%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85세 이상은 절반 정도가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흔한 질환이지만 획기적인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받아야 한다. 치매는 근본적인 예방책은 없지만 늦출 수는 있기 때문이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나라'라고 노래했다. 꽃 피는 봄이 왔지만 산과 들녘은커녕 골목길도 나서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봄은 내년에도 다시 돌아오지만 한 번 떠나간 건강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본인은 물론 주변까지 지옥으로 만드는 치매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고 돌볼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치매는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뇌 손상에 의한 기억력 저하를 비롯한 판단력, 사고력, 언어 능력 등 인지 능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뇌 질환이다. 치매의 3대 원인 질환은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그리고 루이체 치매 등이 있다.

다음으로 뇌혈관성 치매는 치매 환자의 20~30% 정도를 차지하며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 등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뇌경색, 뇌출혈 등과 함께 나타나지는 질환이다. 마지막으로 루이체 치매는 파킨슨병과 관련하여 나타나며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주의력과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손 떨림, 환시, 환경 등이 나타난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비관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습관을 기르고 걷기, 수영, 자전거 등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졸중, 콜레스테롤 등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술과 담배를 삼가는 등 절제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또한 야채, 과일, 생선, 견과류 등을 자주 먹는 식습관이 중요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뇌세포를 죽이는 퇴행성 질환이다. 갑자기 기억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해야 하며, 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 감뻑뻑해지는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결국 재활 병원, 요양 병원 아니면 요양원 등에 모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예전에는 이들 병원이나 시설에 모시는 것을 불효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치매 환자 간병은 전문가의 도움이 어느 것보다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치매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社說

오염 물질 배출 대기업 수치 조작까지 했더니

여수 산단의 대기 오염 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와 대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여수 산단을 대표하는 대기업 여섯 곳을 포함한 235개 사업장이 업체 네 곳과 짜고 미세 먼지 원인 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 역시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대행 체는 여수 산단 등 235개 사업장으로부터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총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빛은 결과이다.

가뜩이나 일상화된 1군 발암 물질인 미세 먼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때에 이들은 버젓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다. 여수 산단을 여수 산단 내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굴뚝 연기를 활발한 산업 경제의 상징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산단 내 기업들은 '셀프 측정'이나 대행업체에 맡기도록 한 제도적 맹점을 악용했다. 심지어 또 대기업은 연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조작했다.

이들의 '꼼수'는 정부와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범죄 행위다. 전국적으로 대기배출 사업장은 5만8932개소에 이른다. 정부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여수 산단 외에도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배출 사업장과 측정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2년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 대행업체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시급하다.

'5·18 망언'도 모자라 이젠 '세월호 망언'인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애도논쟁을 막말을 쏟아내며 비난을 받고 있다. '5·18 망언'이라는 '세월호 망언'인 셈인데 이 같은 '막말 릴레이'로 인해 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

신속히 진화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들의 세월호 비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새누리당 시절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고 했는가 하면 유가족을 향해 '시체 장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이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원죄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의식과 반성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세월호 5주기 당일인 그제,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는 글을 '받은 메시지'라며 페이스북에 올렸다. 같은 당 차명진 전 의원은 전남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지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차 먹고, 찜 찜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말라 먹고 진짜 정하게 해 치먹는다'라는 글을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한편으로는 '막말 정치'로 지지 세력 결집에 성과를 거두자 이들이 경쟁적으로 망언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어찌 됐든 황교안 대표는 그제 세월호 추모식에 참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자들에 대한 단호한 징계를 내리는 것뿐일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 지도부는 막말 당사자들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징계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한다. 비난 여론이 당 전체로 향하기 전에

無等鼓

전시장에 들어선 우린 곧장 추억에 빠져들었다. 캐리커처가 그려진 음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공연을 알리는 낯익은 팸플릿, 그리고 그의 목소리.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서해에서'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나는 '북한강에서'를 좋아했다고 했다. 청아한 박은옥의 목소리로 부르는 '서해에서', '봉숭아'와 울조리는 듯한 정태춘의 목소리가 머릿 속에 재생됐다.

이므로, 풍류가객으로, 자유의 상징으로 명명한다. 그의 음악을 들어온 이들 중 어떤 이는 '츄블', '시인의 마을', '사랑하는 이에게' 등 서정적 이미지로 그를 기억한다. 어떤 이는 음반 사진심의제 철폐와 평택 대추리(정태춘의 고향)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 등을 하며 발표한 '92장마, 종로에서', '5·18' 등 노래 운동가로 그를 기억한다.

출장 중 짬을 내 들른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정태춘 박은옥 40주년 기념전-다시, 건너간 정태춘 다' (29일까지)전을 만났다. 임옥상·강요배·이철수·노순택 등 쟁쟁한 시각예술가 54명이 참여한 대규모 기획전이다. 한명의 대중가수를 기억하기 위해 이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게 놀라웠다. 트리뷰트 음반과 기념 공연 등은 가깝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 전시는 드물다. 여기에 심포지엄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행사 규모가 예상롭지 않다. 두 사람은 14개 도시 순회공연도 연다. 정태춘이라는 예술가는 참으로 행복하겠나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그의 삶과 노래가 그만큼 의미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인터넷으로 오랜만에 노래를 찾아들었다. 예전 음반도 좋지만 얼마 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북한강에서'는 65세 할아버지의 담담한 목소리가 담겨 더 마음에 닿았다.

정태춘

한 시각예술가 54명이 참여한 대규모 기획전이다. 한명의 대중가수를 기억하기 위해 이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게 놀라웠다. 트리뷰트 음반과 기념 공연 등은 가깝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 전시는 드물다. 여기에 심포지엄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행사 규모가 예상롭지 않다. 두 사람은 14개 도시 순회공연도 연다. 정태춘이라는 예술가는 참으로 행복하겠나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그의 삶과 노래가 그만큼 의미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국 대중음악사는 정태춘을 음유시

강물속으로 또 강물이 흐르고/ 내맘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치며 흘러가고/ 강가에는 안개가 안개가 또 가득 흘러가고/ 아주 우울한 나날들이 우리곁에 오래 머물때/ 우리 이전 새벽강을 보러 떠나요/ 강으로 되돌아 가듯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처음처럼 신선한 새벽이 있소/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안개가 천천히 곁길거요."
맞다. 그가 쓴 가사는 한편의 '시'다. /김미은 문화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 (국문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